
2022

Porter Prize Excellence in CSV

제9회 CSV·ESG 포터상 우수기업 사례집



OCI주식회사

체계적인 화학물질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OCI는 글로벌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화학 소재 개발 및 제품 생산능력 확대에 주력해 왔으며,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한 다년 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ackground(배경)

OCI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GHG(Green House Gas) Master Plan'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부생가스 활용, 소각로 운전부하 저감, 운전조건 최적화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의 경제적 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탄소배출에 가치를 부여한 내부탄소가격을 측정함으로써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배출에 대한 금전적인 가치를 산정하여, 기업 운영비용에 탄소배출 관련 비용을 추가하고 있다. 기업 내부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가격 신호를 활발히 제공하여 온실가스 감축 이행 조치 및 배출권 거래제 시장 참여 등 기후변화 대응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자 한다.

Activities

1)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 21년 12월, 금호피앤비화학(주)과 합작사를 설립하여 전기차 및 풍력 발전용 에폭시의 경량화 소재로 사용되는 ECH(에피클로로히드린)사업에 진출하였다. 합작사는 말레이시아 사마라주 내 위치한다. 24년부터 연간 10만 톤의 ECH를 생산할 예정이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생염산과 폐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글리세린 공법'을 통해 생산한다.

말레이시아 공장은 100% 수력발전으로 운영되며, 친환경 무폐수 공정을 채택하여 폐수가 발생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OCI는 포스코케미칼과의 합작법인인 피앤오케미칼을 통해 이차전지 음극재 핵심소재인 고연화점 피치사업에 진출한다. 고연화점 피치는 배터리의 효율 향상 및 수명 연장에 사용되는 원료로,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장치 시장의 확대에 따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전략적 구매관리: 21년 기준 협력업체는 892개이며, 협력업체를 통한 구매금액은 총 1조 1,712억원이다.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협력, 금융지원 및 경영지원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전자구매시스템을 통해 협력사 및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화학물질 운송사고 예방을 위해 매뉴얼에 따라 운송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작업안전수칙 표지판을 설치하고 매상차 작업 시 운송차량 점검수칙에 따라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OCI는 화학물질관리와 관련된 법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화학물질관리시스템(CMS)을 도입 및 운영하고 있다. CMS란 화학물질 구매부터 사용, 폐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물질 단위로 전산 관리하여 총 1만 5,500여 개의 화학 물질에 대해 구매 관리 체계를 통합한 시스템이다.

베이직 케미칼 및 카본 케미칼 제품, 에너지 솔루션, 도시 개발, 바이오 등 다양한 사업 운영



Performance(성과)

OCI는 대기오염물질과 관련하여 법규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9년 12월, 환경부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20년 11월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허가를 취득하였다. 더불어 폐수 재이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21년 총 9,294,068톤 중 484,449톤을 재사용하였다. 폐수처리시설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폐수를 처리하거나 적법한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폐수 위탁 처리 업체를 통해 폐수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OCI는 19년 장애인 표준 사업장 OCI DREAM을 설립하여, 중증 및 경증 장애인을 채용함으로써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며,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Process

OCI는 ESG경영 강화를 위해 21년 7월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신설하였다. OCI의 ESG위원회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전략 및 주요 사항을 수립하고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위한 중심역할을 해왔으며, 법, 회계재무, 바이오산업, 경영혁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인 사외이사 4명 전원이 참가하고 있다. ESG위원회는 지배구조, 환경안전, 조세투명성, 이해관계자 보호 등과 관련된 강령 및 규정을 제·개정하였으며, 현재

폐기물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중장기 환경 정책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22년 2월 전사 안전보건 경영을 통해 안전 및 보건이 최우선 가치임을 선언하고 경영방침 및 경영목표를 공개했다. OCI는 기업 경영활동 시 불확실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리스크 관리 정책 및 세부 방침을 정립하고 각 조직 별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방식을 규정하였고, 규정에 따라 경영기획팀의 주관 하에 매년 연초 모든 부서가 리스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각 팀이 리스크 관리 현황에 대해 연 2회 주관부서가 연 1회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세부 내용을 경영진에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고 있다.

Future(전망)

OCI는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제도 혁신의 일환으로 시공간 제약이 없는 업무환경을 위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오피스를 도입하였다. 이외에도 지역 저소득층, 지역 아동센터 등에 대한 후원 및 장애인 대상 행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생활 속 실천을 다짐하였다. 생산역량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며, 비즈니스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경영을 기반으로 책임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이다.